

KMI 동향분석

VOL.188
2023 AUGUST

발간년월 2023년 8월(통권 제188호) 주 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발행인 김종덕
감 수 김민수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자료문의 기획조정본부 성과홍보실 홈페이지 www.kmi.re.kr
※ 이 보고서의 내용은 우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닌 집필진의 견해입니다.

2022년 연안지역 상권 매출액 58조원, 해양관광 시장규모 64.5%로 37조 4,400억원으로 추정

최일선 지역경제관광·문화연구실장
(ilsunchoi@kmi.re.kr/051-797-4727)
이슬기 지역경제관광·문화연구실 전문연구원
(sglee84@kmi.re.kr/051-797-4768)
김예림 지역경제관광·문화연구실 연구원
(yelimkim@kmi.re.kr/051-797-4797)

2022년 우리나라 연안지역의 상권 매출액은 58조 200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 중 해양관광 영향업종인 숙박, 숙박외 여가오락, 음식, 소매·유통에 한정하여 해양관광 시장규모를 추정해 본 결과 전체 연안지역 상권 매출액의 64.5%, 37조 4,400억원 수준으로 분석된다. 2018년 해양관광 시장규모는 29조 3,000억원에서 2019년 2.0% 상승하여 29조 9,000억원 수준이었고,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4.3% 감소하여 28조 6,500억원을 기록하였다. 2021년 해양관광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9.4% 증가한 31조 3,3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해외여행 자제와 비대면, 자연을 중심으로 하는 국내관광이 활성화되면서 연안 지역이 주목받기 시작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코로나19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전히 해제된 2022년 해양관광 시장규모는 전년 대비 19.5% 증가하였다.

연안지역별 해양관광 시장규모를 분석한 결과 부산연안이 2022년 기준 5조 7,200억원 수준으로 가장 높았으며, 경남(5조 2,700억원), 전남(4조 9,100억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들 세 지역(부산, 경남, 전남)을 포함하는 남해안의 해양관광 시장규모는 15조 9,000억원 수준으로 전체 우리나라 해양관광 시장규모의 42.5%를 차지했다. 반면에 2022년 기준 해양관광 시장규모가 가장 낮은 지역은 전북연안으로 7,75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해양관광 소비가 가장 높은 부산연안의 13% 수준이다. 2020년 코로나19로 해양관광 시장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지역은 부산(-12.0%), 울산(-11.1%), 경남(-6.1%) 순이었다. 2021년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해양관광 소비가 증가한 지역은 제주(23.3%)와 충남(15.4%), 경북(14.3%), 경기(14.3%)인 것으로 분석된다.

연안지역의 해양관광 업종별 소비트렌드를 분석한 결과 2022년 기준 음식업종 소비 비중이 전체의 54.2%, 20조원을 기록하였다. 한편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업종은 음식, 숙박외 여가오락, 숙박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2022년 매출액이 가장 크게 상승한 업종은 음식으로 전년 대비 4조 2,000억원이 증가하였다.

연안지역 해양관광객의 소비 특성을 분석한 결과 2018년에서 2020년까지 20대의 해양관광 소비비중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었으나, 2021년 이후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해양관광시장은 3040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코로나19 회복 이후 5060세대의 소비 비중도 증가추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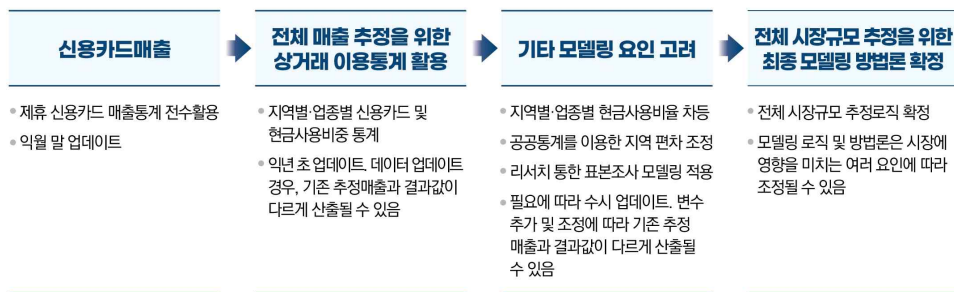
본 연구는 우리나라 해양관광시장 수요 분석을 위하여 연안지역 462개 행정동을 공간적 범위로 한정하고, 해양관광 영향 업종인 숙박, 숙박외 여가오락, 음식, 소매·유통 신용카드 소비데이터를 제한적으로 분석하여 이외 해양관광과 관련한 운송업, 제조 및 수리업 등 시장의 분석은 포함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해양관광산업통계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해양관광 관련 운송업의 전체 추정액은 3,000억원, 해양관광 관련 제조업은 4,500억원 규모로 추정하고 있어 이러한 추정액과 더한 해양관광 시장규모 분석이 필요하다. 향후에는 기존의 집계성 통계 데이터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가명정보 형태의 정확도 높은 소비데이터를 추가 확보하고 해양관광의 특성을 반영한 업종의 분석을 보완하여 해양관광 시장규모 추정과 소비트렌드 분석에 대한 정확성 제고가 필요하다.

빅데이터 기반 해양관광 수요분석 개요

■ 나이스지니데이터(주)가 제공한 상권매출 및 소비행태 분석 실시

- 분석기간 및 분석대상
 - 분석기간: 지역 해양관광 빅데이터 분석기간은 코로나 영향 비교·분석을 위하여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5년(60개월)을 대상으로 실시함
 - 분석대상: 해양·연안지역 행정동 462개
- 분석방법 및 활용데이터
 - 분석방법: 2개 카드사 정보를 활용하여 카드사/지역/업종 점유비 및 현금사용 비중 적용 추정식을 반영, 전체 상권규모를 추정함(대형마트, 백화점, 호텔 내 일부 점포, 대기업 프랜차이즈(직영), 온라인 매출 및 소비 정보 비포함)

〈그림 1〉 지역 해양관광 신용카드 빅데이터 분석방법



자료: 나이스지니데이터(주)

- 활용데이터
 - ① 지역 상권 매출 업종: 지역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소매·유통, 음식, 여가오락(숙박 포함), 생활서비스 및 교육·의료 서비스 등 전반적인 상권을 평가함
 - ② 해양관광 관련 업종: 해양관광으로 인한 지역 상권은 영향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지역경제와 밀접한 업종을 중심으로 활용하였으며, 숙박, 숙박 외 여가오락, 음식, 소매·유통업(단, 분석대상 지역의 업종별 점포표본 수 3개 미만 데이터는 제외)

〈표 1〉 지역 해양관광 영향효과 분석 업종

대분류	중분류
소매·유통	음/식료품 소매, 의복/의류, 패션잡화, 스포츠/레저용품 등
숙박 외 여가오락	일반스포츠, 취미/오락, 요가/마사지 등
음식	한식, 중식, 양식, 일식, 수산물요리, 고기요리, 치킨, 빵/제과, 커피/음료, 주점 등
숙박	기타숙박, 리조트, 모텔/여관, 펜션, 호텔 등

자료: 나이스지니데이터(주) 참고 저자작성

빅데이터 기반 해양관광 수요분석 결과

■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연안지역 상권 매출액은 58조 200억원 수준

- 2018년 전체 연안지역 상권 매출액은 44조 9,000억원으로 나타났고, 2019년은 45조 1,000억원 수준이었으나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6.5% 감소한 42조 2,000억원 수준임
- 2021년은 전년 대비 12.9% 증가한 수치로 2018년, 2019년과 비교했을 때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대면, 자연을 중심으로 하는 국내관광이 활성화되면서 연안지역이 주목받기 시작¹⁾한 것과 일맥상통함
- 2022년 4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전히 해제되고 일상이 회복되면서 2021년 대비 연안지역 상권 매출액은 21%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2〉 연도별 연안지역 상권 매출액 변화 추이



자료: 나이스지니데이터(주) 참고 저자작성

■ 2022년 해양관광 시장규모는 37조 4,400억원으로 전체의 64.5% 수준

- 2022년 해양관광 시장규모는 37조 4,400억원 수준으로 전체 연안지역 상권 매출액의 64.5% 수준으로 나타나 연안지역의 해양관광이 차지하는 비중을 추정할 수 있음
- 2018년 해양관광 시장규모는 29조 3,000억원에서 2019년 2.0% 상승하여 29조 9,000억원 수준이었고,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4.3% 감소하여 28조 6,500억원으로 나타남

1) 최일선·황재희·이슬기·김예림·최지연(2022). MZ세대 소비트렌드를 반영한 해양관광 추진방안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p.5.

- 2021년 해양관광 시장규모는 전년 대비 9.4% 증가한 31조 3,300억원을 기록하였음. 이는 코로나 19로 인한 해외여행 자제와 비대면, 자연을 중심으로 하는 국내관광이 활성화되면서 연안지역이 주목받기 시작²⁾한 것과 일맥상통함
- 2022년 4월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전히 해제되면서 전년 대비 19.5% 증가한 37조 4,400억원으로 나타남

〈그림 3〉 연도별 해양관광 시장규모 변화 추이



자료: 나이스지니데이터(주) 참고 저자작성

■ 우리나라 연안지역 중 부산연안의 해양관광 소비가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경남, 전남 순

- 연안지역별 해양관광 시장규모를 분석한 결과 부산연안이 2022년 기준 5조 7,200억원 수준으로 나타나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경남(5조 2,700억원), 전남(4조 9,000억원) 순으로 나타났으며, 동기간 전체 연안의 평균인 3조 4,000억원을 크게 상회하고 있음
- 이들 세 지역(부산, 경남, 전남)인 남해안의 해양관광 시장규모는 15조 9,000억원 수준으로 전체 우리나라 연안 시장규모의 42.5%를 차지함
- 2022년 기준 해양관광 시장규모가 가장 낮은 지역은 전북연안으로 7,750억원으로 해양관광 소비가 가장 높은 부산연안의 13% 수준인 것으로 분석됨

■ 코로나19로 해양관광시장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지역은 부산, 울산, 경남 순

- 코로나19가 시작되었던 2020년을 기준으로 부산은 전년 대비 -12.0%, 울산은 -11.1%, 경남은 -6.1% 순으로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남

2) 최일선·황재희·이슬기·김예림·최지연(2022). MZ세대 소비트렌드를 반영한 해양관광 추진방안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p.5.

- 반면에 코로나19의 영향을 가장 적게 받은 지역은 경기(3.8%), 강원(2.6%), 충남(2.3%)으로 이들 세 지역은 전년 대비 약간씩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어 수도권을 배후로 근거리 해양관광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 2021년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해양관광 시장규모가 증가한 지역은 제주와 충남, 2022년은 대부분의 연안지역이 고르게 증가

- 2021년 기준, 전년과 대비하여 해양관광 시장규모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제주(23.3%), 충남(15.4%), 경북(14.3%), 경기(14.3%) 순임
- 2022년은 대부분 연안지역의 관광소비가 전년과 대비하여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

〈표 2〉 연안지역 X 연도별 해양관광 시장규모 트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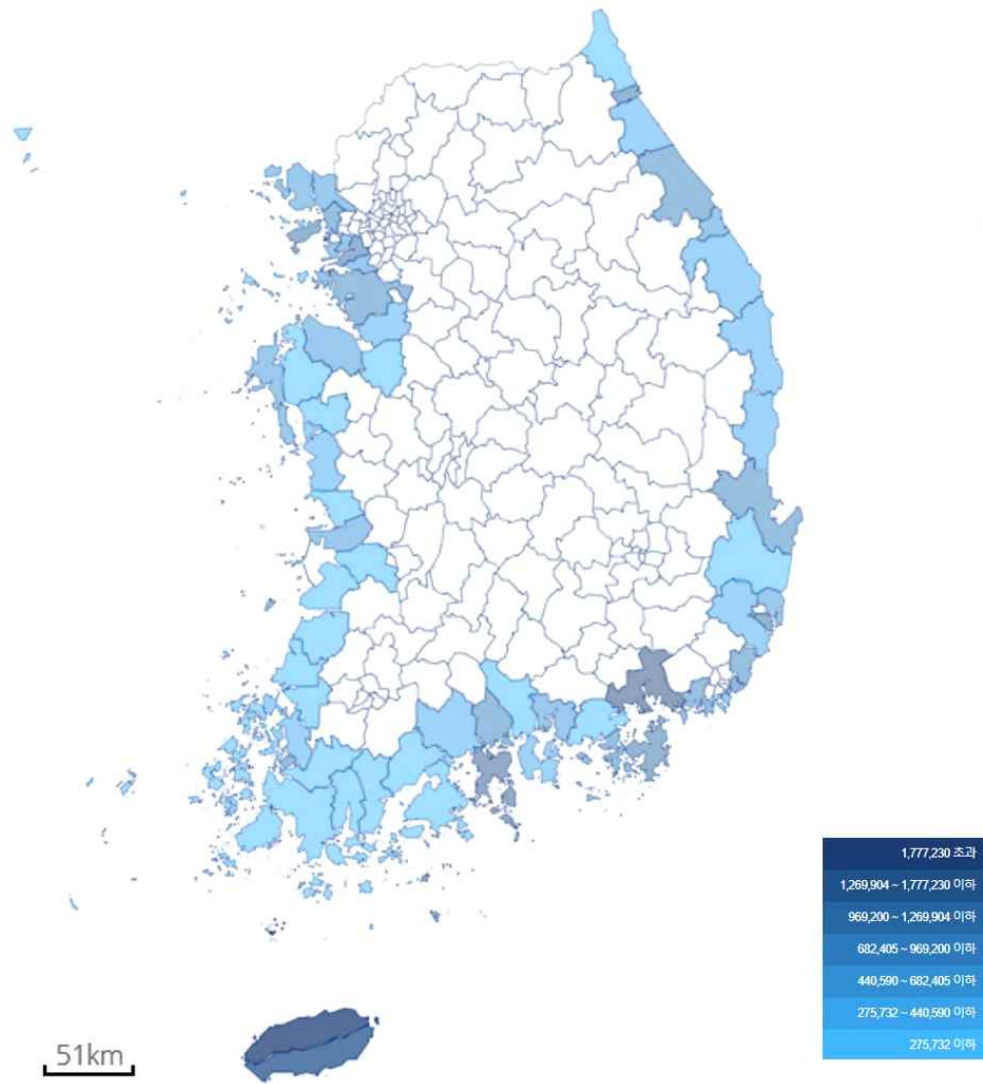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

지역	해양관광 시장규모								
	2018년	2019년	전년 대비 증감율	2020년	전년 대비 증감율	2021년	전년 대비 증감율	2022년	전년 대비 증감율
부산연안	4,786,052	4,882,438	2.0%	4,295,493	-12.0%	4,654,190	8.4%	5,721,731	22.9%
인천연안	3,174,522	3,141,923	-1.0%	2,973,637	-5.4%	3,229,215	8.6%	4,017,593	24.4%
울산연안	2,255,201	2,223,236	-1.4%	1,976,293	-11.1%	1,970,381	-0.3%	2,388,764	21.2%
경기연안	2,126,870	2,148,907	1.0%	2,230,100	3.8%	2,549,265	14.3%	3,098,299	21.5%
강원연안	2,430,328	2,502,826	3.0%	2,567,724	2.6%	2,813,166	9.6%	3,417,196	21.5%
경북연안	1,409,302	1,458,279	3.5%	1,406,611	-3.5%	1,608,198	14.3%	1,890,359	17.5%
경남연안	4,688,979	4,731,324	0.9%	4,441,219	-6.1%	4,579,908	3.1%	5,278,923	15.3%
전북연안	654,190	632,837	-3.3%	619,700	-2.1%	676,412	9.2%	775,436	14.6%
전남연안	3,874,961	4,086,385	5.5%	4,007,636	-1.9%	4,274,519	6.7%	4,916,296	15.0%
충남연안	1,408,447	1,458,720	3.6%	1,492,159	2.3%	1,722,071	15.4%	1,986,864	15.4%
제주연안	2,545,753	2,662,971	4.6%	2,643,025	-0.7%	3,258,404	23.3%	3,952,676	21.3%

자료: 나이스지니데이터(주) 참고 저자작성

〈그림 4〉 2022년 연안지역 해양관광 시장규모 현황

(단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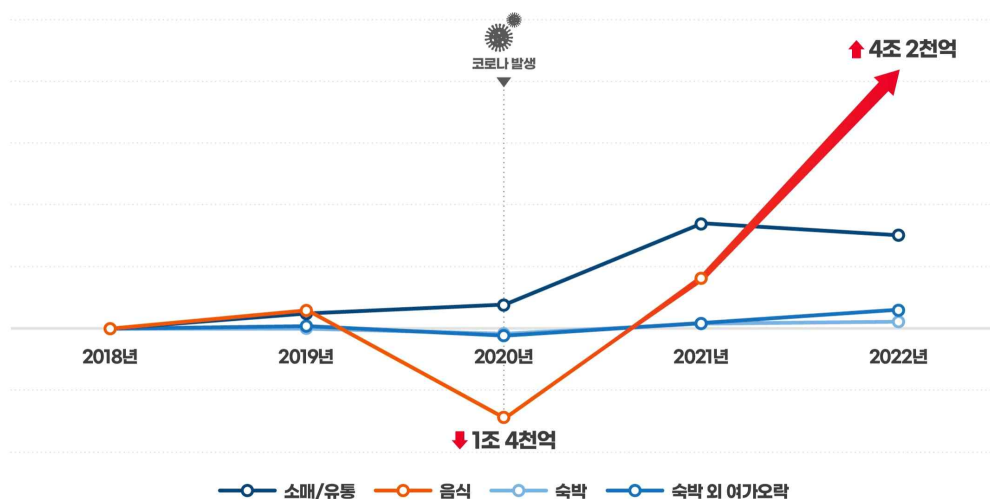
자료: 나이스지니데이터(주) 참고 저작작성

해양관광 업종별 소비트렌드 분석

■ 2022년 기준 연안지역 음식 업종 소비가 가장 높은 편으로 20조 원 수준

- 연안지역 해양관광 업종인 소매/유통, 숙박, 숙박 외 오락, 음식 업종에 대한 비교·분석 결과, 음식업종 소비 비중(54.2%)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소매/유통(41.1%)인 것으로 분석됨
- 숙박은 7,000억원 규모로 나타났으며, 숙박 외 여가오락의 규모는 1조 원 수준임
- 2019년에서 2020년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업종은 음식, 숙박 외 여가오락, 숙박 순으로 각각 1조 4,000억원, 1,000억원, 9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위생과 안전에 대한 문제가 반영되어 음식, 여가오락, 숙박 여행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됨
- 반면에 일상회복이 된 2022년 매출액이 가장 크게 상승한 업종은 음식으로 전년 대비 4조 2,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5〉 업종별 해양관광 소비트렌드



자료: 나이스지니데이터(주) 참고 저자작성

〈표 3〉 업종별 해양관광 소비트렌드

(단위: 백만원)

지역	해양관광소비 매출액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소매/유통	11,576,706	11,818,019 (2,000억원 ▲)	12,201,443 (4,000억원 ▲)	13,903,847 (1조 7,000억원 ▲)	15,405,817 (1조 5,000억원 ▲)
숙박	614,150	614,750 (6억원 ▲)	523,872 (900억원 ▼)	602,208 (800억원 ▲)	712,551 (1,000억원 ▲)
숙박 외 여가오락	730,834	772,602 (400억원 ▲)	652,224 (1,000억원 ▼)	736,440 (800억원 ▲)	1,039,130 (3,000억원 ▲)
음식	16,432,914	16,724,467 (3,000억원 ▲)	15,276,058 (1조 4,000억 ▼)	16,093,233 (8,000억원 ▲)	20,286,639 (4조 2,000억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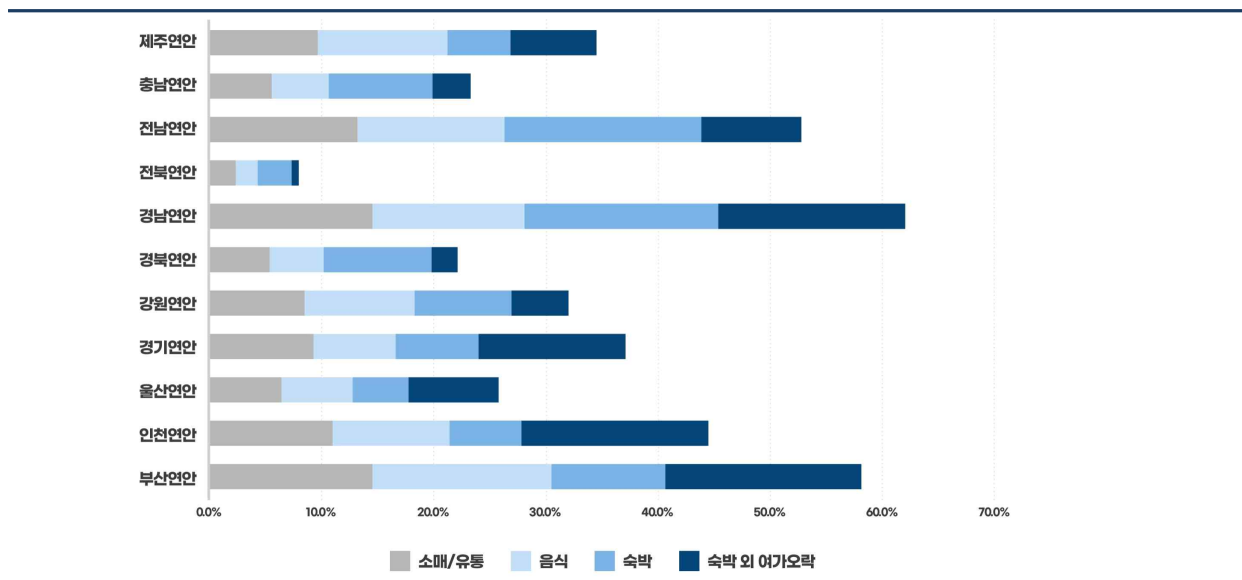
자료: 나이스지니데이터(주) 참고 저자작성

■ 2022년 기준 연안지역별 해양관광 업종 매출액은 상이하며, 전체적으로 소비비중이 높은 부산과 경남이 모든 업종에서 대체로 높은 편

- 소매/유통, 음식과 숙박 외 여가오락 소비액이 높은 지역은 부산과 경남연안이며, 숙박업종은 전남 연안으로 나타남
- 반면에 전북연안의 소비액이 전체적으로 낮았으며, 그중 숙박업종의 매출액이 218억원 수준으로 전북연안의 숙박여행이 낮은 편임을 알 수 있음

〈그림 6〉 연안지역 X 업종별 해양관광 소비트렌드(2022년 기준)

(단위: %)



자료: 나이스지니데이터(주) 참고 저자작성

〈표 4〉 연안지역 X 업종별 해양관광 소비트렌드(2022년 기준)

(단위: 백만원)

지역	해양관광소비 매출액				
	소매/유통	숙박	숙박 외 여가오락	음식	합계
부산연안	2,241,536	72,824	181,398	3,225,974	5,721,731
인천연안	1,692,793	45,843	172,764	2,106,192	4,017,593
울산연안	989,914	35,651	83,342	1,279,857	2,388,764
경기연안	1,421,860	52,721	136,319	1,487,398	3,098,299
강원연안	1,296,751	61,040	52,944	2,006,461	3,417,196
경북연안	819,609	68,480	24,514	977,756	1,890,359
경남연안	2,239,248	123,497	172,989	2,743,189	5,278,923
전북연안	351,138	21,879	6,854	395,564	775,436
전남연안	2,026,751	124,544	93,325	2,671,677	4,916,296
충남연안	848,074	65,746	35,618	1,037,425	1,986,864
제주연안	1,478,142	40,325	79,063	2,355,145	3,952,676

자료: 나이스지니데이터(주) 참고 저자작성

해양관광 연령별 소비트렌드 분석

■ 우리나라 해양관광시장은 30대~40대의 소비비중이 높은 편, 50대도 빠르게 뒤따라가

- 2018년~2020년까지 20대의 해양관광 소비비중이 약간씩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었으나, 2021년 이후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3040을 중심으로 해양관광 소비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며, 코로나19 회복 이후 5060세대의 소비비중도 증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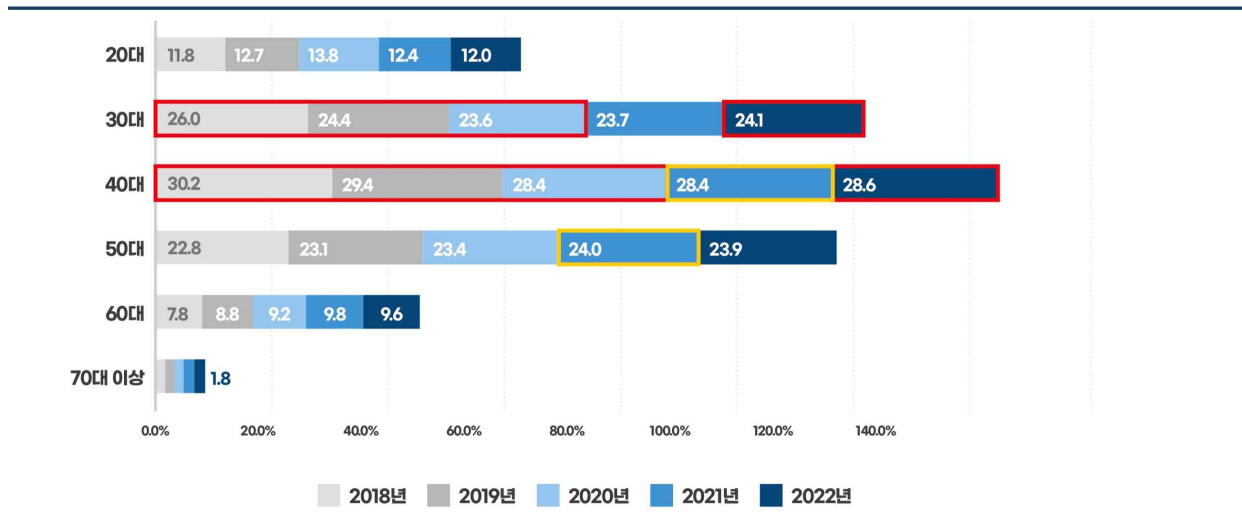
〈표 5〉 연령별 해양관광 소비트렌드

지역	해양관광 소비비중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대	11.8%	12.7%	13.8%	12.4%	12.0%
30대	26.0%	24.4%	23.6%	23.7%	24.1%
40대	30.2%	29.4%	28.4%	28.4%	28.6%
50대	22.8%	23.1%	23.4%	24.0%	23.9%
60대	7.8%	8.8%	9.2%	9.8%	9.6%
70대 이상	1.4%	1.6%	1.7%	1.8%	1.8%

자료: 나이스지니데이터(주) 참고 저자작성

〈그림 7〉 연령별 해양관광 소비트렌드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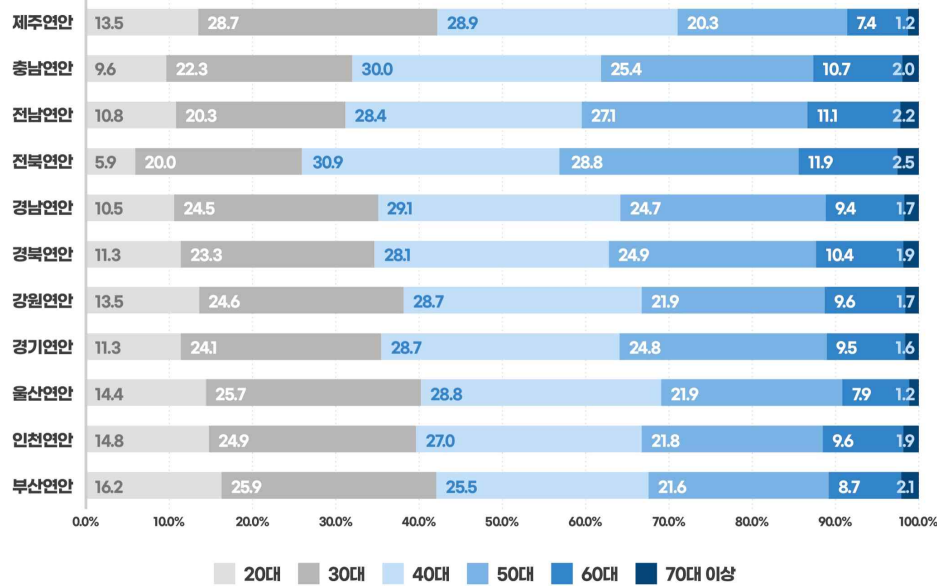
자료: 나이스지니데이터(주) 참고 저자작성

■ 2022년 기준 연안지역별 연령대 비중 다르게 나타나

- 연안지역별 소비연령 특징을 살펴보면 부산연안은 20대 비중이 16.2%로 나타나 타 지역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반면에 전북연안의 20대 비중은 5.9%로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제주연안은 30대의 비중이 28.7%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부산연안은 25.9%로 나타나는 등 연안지역별로 30대의 비중은 비슷한 수준임
- 해양관광시장의 주요 소비계층인 40대는 11개 연안 전 지역에서 비교적 고른 소비 분포를 보였음. 다만 부산이 25.5%로 타 연안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이 특징임

〈그림 8〉 연안지역 x 연령별 해양관광 소비트렌드(2022년 기준)

(단위: %)



자료: 나이스지니데이터(주) 참고 저자작성

〈표 6〉 연안지역 X 연령별 해양관광 소비트렌드(2022년 기준)

지역	해양관광소비 비중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부산연안	16.2%	25.9%	25.5%	21.6%	8.7%	2.1%
인천연안	14.8%	24.9%	27.0%	21.8%	9.6%	1.9%
울산연안	14.4%	25.7%	28.8%	21.9%	7.9%	1.2%
경기연안	11.3%	24.1%	28.7%	24.8%	9.5%	1.6%
강원연안	13.5%	24.6%	28.7%	21.9%	9.6%	1.7%
경북연안	11.3%	23.3%	28.1%	24.9%	10.4%	1.9%
경남연안	10.5%	24.5%	29.1%	24.7%	9.4%	1.7%
전북연안	5.9%	20.0%	30.9%	28.8%	11.9%	2.5%
전남연안	10.8%	20.3%	28.4%	27.1%	11.1%	2.2%
충남연안	9.6%	22.3%	30.0%	25.4%	10.7%	2.0%
제주연안	13.5%	28.7%	28.9%	20.3%	7.4%	1.2%

자료: 나이스지니데이터(주) 참고 저자작성

분석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과제

■ 해양관광 분야 업종 한계 존재

- 우리나라 해양관광시장 수요 분석을 위하여 연안 행정동을 공간적 범위로 한정하고 외지인의 이용 영향을 고려한 업종(숙박, 숙박 외 여가오락, 음식, 소매/유통)의 신용카드 소비데이터를 제한적으로 분석함. 이밖에 해양관광과 관련한 운송업, 제조 및 수리업 등 시장의 분석은 포함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
- 해양관광산업통계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해양관광 관련 운송업의 전체 추정액은 3,000억원, 해양관광 관련 제조업은 4,500억원 규모로 추정하고 있어 이러한 추정액과 더한 해양관광 시장규모 분석이 필요함
- 향후에는 기존의 집계성 통계 데이터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가명정보 형태의 정확도 높은 소비데이터를 추가 확보하고, 해양관광의 특성을 반영한 업종의 분석을 보완하여 해양관광시장의 규모 추정과 소비트렌드 및 외지인 방문 특성 등에 대한 정확성 제고가 필요함

■ 해양관광 연령별 소비트렌드 해석 주의 필요

- 우리나라 해양관광 연령별 소비트렌드는 신용카드 이용객의 연령대별 소비 비중 정보를 활용하여 업종별 사용금액을 추정하여 분석함
- 본 데이터 조사 결과가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할 수 있도록 연령과 성별 구성비, 연령대별 전체 시장규모를 파악하여 가중치를 적용하였음
- 다만 이러한 데이터 조정에도 불구하고 연령별 해양관광 소비트렌드 분석에는 세대별 소비행태변화와 지역별 해양관광지 특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해석과 분석이 필요함

■ 데이터 다각화를 통한 해양관광시장 정밀 분석 필요

- 신용카드 소비 정보와 같은 단일 빅데이터 분석의 한계점은 과거 거래내역을 기반으로 분석하여 새로운 사건이나 트렌드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과 실제 사회 현상과 연관성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어렵다는 한계를 가짐
- 향후 연구에서는 신용카드 빅데이터의 결합적 활용과 함께 소비자 수요조사, 이동통신 데이터를 활용한 유동인구 분석, 기업데이터를 활용한 산업규모 분석 등을 병행하여 더욱 정확한 해양관광 시장규모의 추정과 소비트렌드 분석의 정확도를 높이고, 관광객의 직접적인 의견을 수집하여 행태분석을 추진하고자 함

- 또한 연도별 해양관광 시장규모 추정뿐 아니라 분기별로 해양관광산업 분석을 시행하여 산업 전망을 도출하고, 여름철 해수욕장 개장으로 인한 지역경제 효과분석, 해양레저관광 거점 시설 정책효과 분석 등 해양관광 분야의 다양한 빅데이터 분석을 시의적절하게 추진하여 국가 정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함
- 향후 해외 관광객의 해양관광 시장규모를 추정하여 우리나라 해양관광 시장이 글로벌 관광시장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파악하고자 함. 이는 다국적화되는 관광시장 여건변화에 대응하고 체계적인 해양관광정책 및 마케팅 전략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